

KT, 연료전지·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

KT와 에너지관리공단은 11월25일 서울 서초동 KT 올레캠퍼스에서 협약을 맺고 그린IT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개발기로 합의했다.

KT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, 건물, 수송, 신·재생에너지, IT 등 5개 분야에 걸쳐 IT와 에너지 기술의 융합을 응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다.

구체적인 사업영역은 ▲대·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▲도심형 신·재생에너지 발전 ▲건물 연료전지 시범보급 ▲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▲에너지관리공단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 ▲데이터 재난복구센터 구축 등이다.

KT 관계자는 “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해 산업계 전반이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1/11/28>